

이민자 유형별 정착서비스 수요 및 생활만족도 분석*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Settlement Services Necessary for Each Type of Immigrant and Their Life Satisfaction Analysis

: Focusing on Foreign Workers, Marriage Immigra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임 동 진**

Dong-Jin Lim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체류 유형별로 정착에 필요한 정착서비스는 무엇이고, 이들의 생활만족도 수준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들이 논산지역에서 정착 및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착서비스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및 생활고충 상담(46.1%)을, 결혼이민자는 한국어지원프로그램(37.1%)을,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활동 등의 기회 확대(48.0%)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공공서비스 만족도(1-5점 척도) 조사결과, 외국인근로자는 의료서비스(3.71점)에 가장 만족하였고, 결혼이민자는 통·번역서비스(3.46점)에 가장 만족했지만, 유학생들은 통·번역서비스(2.76점)는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또한, 본 연구는 2020년 논산시 연구용역보고서 「논산시 관내 외국인 실태조사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을 밝힙니다.

**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논문 접수일: 2021. 9. 23. 심사기간: 2021. 9. 23. ~ 2021. 11. 4. 게재확정일: 2021. 11. 4.

불만족하였다. 셋째,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 출신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한 이민자일수록 논산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유학생일수록, 생활 거주지역 이동횟수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 이민자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정착서비스는 각 이민자의 체류목적과 정착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특정국가 출신, 개인건강상태, 유학생, 거주지역 이동횟수 등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사회학적 특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이민자, 이민자 유형, 정착서비스, 생활만족도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ttlement services necessary for settlement by type of stay of immigrants living in Nonsan-si, South Korea and their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influencing factors, and to presen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m.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360 immigrants living in Nonsan-si. The main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the most necessary settlement services for immigrants to settle and live in Nonsan, foreign workers need counseling (46.1%), marriage immigrants need Korean language support programs (37.1%), and foreign students need opportunities (48.0%). Second, as a result of the public service satisfaction (5-point scale), foreign workers were most satisfied with medical services (3.71 points), and marriage immigrants were most satisfied wit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3.46 points), but international students were dissatisfied wit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2.76 points). Third, as a factor affecting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of immigrants, the more they are from Southeast Asia and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more healthy immigrants, the higher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in Nonsan. On the other hand, the more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more times they move to living areas, the lower their life satisfaction was. Finally, as an implic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settlement services required for each immigrant type differ according to the purpose of stay and settlement stage of each immigran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mmigrants' overall life satisfaction was more affected by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tha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those from specific countries, personal health status,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number of moving in living areas.

□ Keywords: Immigrants, Immigrant Types, Settlement Services, Life Satisfaction

I. 서론

현대의 시대를 ‘이민의 시대(age of migration)’라고 부를 정도로 국제적으로 이민이 활발하다(Castles & Miller, 2009). 국제적 이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주로 OECD 국가들)으로의 이민인구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2005). 1995~2005년의 국제인구이동을 조사한 UN(2006)의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인구 증가의 50% 이상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이민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17년 현재 세계 이민인구의 약 64%(1억 6천 5백만 명)는 고소득 국가(high-income countries)들이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이민인구가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UN, 2017)¹⁾. 물론 이러한 국제 이민인구 이동 현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은 1990년에 5만명에서 2019년말에는 250만명으로 증가하여 전체인구의 4.8%에 이르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이 이민자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고소득 국가들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겪고 있고, 이민자 수용으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World Bank, 2006). 이렇게 고소득 국가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주로 대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Benton-Short et al., 2005). 그 이유는 대도시들이 도시 기능 유지에 숙련된 전문직 및 관리직 근로자들과 동시에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들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Sassen, 2001).

고소득 국가들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는 지역적으로 보면 대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non-metropolitan areas)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는 비도시지역들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기존에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마저 대도시지역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현상을 가속하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이민자들을 대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으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연구들이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다(Hugo, 2008; 임동진·김옥녀, 2021).

우리나라의 경우 비수도권지역, 지방 중소 도시지역의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인구감소 문

1) 2017년 현재 기준 국제이민인구 10명 중 6명이 주로 아시아(8천 만명), 유럽(약 7천8백만명)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이 북미(5천 8백만명), 아프리카(2천 5백만명), 라틴과 캐리비언(9백 5십만명), 오세아니아(8백 4십만명) 순이다. 국제이민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1천 7백만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멕시코(1천 3백만명), 러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시리아아랍공화국,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순이고 1천 1백만명~6백만명 수준이다(UN, 2017).

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지역별 인구소멸지수²⁾의 분석결과를 보면 시군구 228개 중 105곳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16곳이 더 증가한 수치로 인구소멸지역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이상호, 202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도시 중의 하나인 논산시³⁾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체류 유형별로 정착에 필요한 정착서비스는 무엇이고, 이들의 생활만족도 수준과 관련 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민자를 위한 정착서비스 필요성, 이민자의 생활만족도와 영향 요인 등에 관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이민자를 위한 정착서비스의 필요성

이민자들은 새로운 국가와 낯선 환경에 정착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우선, 이민자들은 편견, 차별, 인종차별을 경험한다(Berry & Hou, 2017; Richmond, 2001; Schroeter & James, 2015). 다음은 언어문제와 사회적 소외이다(Hou & Beiser, 2006; Smith & Khawaja, 2011; Stewart et al., 2008). 또한 이민자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장벽(Makwarimba et al., 2013), 실업, 재정적 어려움(Bevelander & Pendakur, 2014), 사회적 연계 및 지역사회 연계 부족(Tonsing, 2013) 등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이민자들이 새로운 국가와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빨리 적응하고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정착서비스가 필요하다.

2) 인구소멸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수 대비 20-39세 여성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계산하는데,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고, 0.2미만 이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의 중소도시(수도권 및 광역대도시권 제외)는 모두 35개인데, 이 중 30개 지역이 외국인 주민 수가 1만 명 미만이다(행정안전부, 2020). 이들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10만 명 수준의 인구 규모, 5% 이상 외국인 주민 비율, 고령화 인구비율이 10% 이상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논산시는 이들 30개 지역 중에 하나로 인구가 12만 명, 외국인 주민 비율 6.2%(7,610명), 고령화 인구비율이 25.3%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다(논산시, 2020). 이처럼 논산시는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중소도시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서 지방의 중소도시의 특성을 어느 정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민자를 위한 정착서비스(settlement services)⁴⁾는 신규 이민자들이 새로운 국가에서 정착·통합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수요와 요구 사항들이 충족되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support) 및 도움(assistance)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착서비스의 목표는 이민자들이 경제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데 장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Evans & Shields, 2014). 이민자들의 정착 및 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착서비스는 순응(adjustment), 적응(adaptation), 통합(integration)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순응은 새로운 문화, 언어, 사람, 환경에 적응하거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적응은 많은 도움 없이 상황을 학습하고 관리하는 것을, 통합은 새로운 국가의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 및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OCASI & COSTI, 1999).

이민자를 위한 정착서비스에는 ①언어 습득 및 능숙도, ②고용 관련 서비스, ③주택, ④정보 워크숍 및 정착 상담 서비스 등이 있다. 이민자를 위한 정착 및 통합 정책이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며, 이민자를 수용하는 주류사회의 정주민들이 이민자들이 자신의 지역사회 거주에 필요하다고 믿는 것을 모두 반영하는 프로그램(program)이나 사업(practices)들이라고 할 수 있다(Siemiatycki & Triadafilopoulos, 2010). 더욱이, 이러한 정책들은 이민자 수용사회가 이민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Reitz, 1998), 이민자가 순응, 적응 및 통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경로로 지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의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착서비스에는 지역사회와의 연결(50.3%), 언어교육(34.1%), 취업 및 일자리(12.3%), 취업 정보서비스(12.3%)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Immigration, Refugee & Citizenship Canada, 2017).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교육과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가 이민자의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를 위한 언어교육은 이민자들의 고용기회를 증가시키고, 인적자원 및 사회공공서비스의 이용과 활용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ewart et al., 2008). 또한 이민자들의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가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고, 이민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차별을 완화하였다(Edge, Newbold, & McKeary, 2014).

이민자들의 정착의 어려움과 정착서비스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결혼이민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에서 결혼이민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언어 장벽, 의사소통의 어려움, 모국 문화 표출과 유지 욕구, 정체성에 대한 갈등, 자녀의 사회적 적응 문제, 가족내 갈등, 문화

⁴⁾ 정착서비스(settlement services)는 때로는 정착 및 지원서비스(settlement and support services)라고도 하며, 통상 신규 이민자가 정착 후 5년까지를 정착서비스가 필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Smyth et al., 2017).

적 이질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갈등, 다른 문화에서 오는 부부 갈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오영배, 2006; 김희주·은희경, 2007; 이강숙, 2007; 이오복, 2009). 최근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민자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민자 정착서비스 수요에 대한 연구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 생활정보지원, 취업관련 정보 및 일자리 제공, 출입국 및 체류관련 교육 및 상담 등의 정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임동진·김옥녀, 2021).

2. 이민자의 생활만족도와 영향요인

생활(삶)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개인의 웰빙(wellbeing)에 관한 것으로, 어느 특정 시점에 개인의 생활에 대해 자신의 인식을 토대로 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Diener, 1984; Ormel et al., 1999).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Bonini, 2008; Bohnke, 2008; Litwin, 2005). 우선, 생활만족도는 다양한 개인적인 배경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Diener et al., 1993). 또한, 사회적 자본(사회적 접촉 및 사회적 지원 등)이 생활만족도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 국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ohnke, 2008). 교육 역시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고 소득을 높여 생활만족도를 높였다(Helliwell, 2003). 성별과 연령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노인의 경우 결혼 상태, 건강상태 및 사회적 자본(연락처 및 사회 활동)이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Litwin, 2005). 또한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주관적 및 객관적 변수로 구분하기도 한다.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객관적인 매개변수에는 교육(Helliwell, 2003)과 생활 수준(Diener et al., 1993; Bohnke, 2008)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관적 변수에는 소셜 네트워크와 사회적 활동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Neto, 2001), 종교적 소속 및 참여(Smith et al., 2003) 등이 있다. 최근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생활만족도 변화의 81%는 개인의 특성(성별, 연령, 결혼 여부, 소득 및 교육)에 의해 설명이 되고, 19%는 국가 특성(GDP, 인간 개발 및 환경 지수)에 의해 설명이 된다고 발표되기도 하였다(Bonini 2008).

이민자들에 대한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주관적인 차원의 접근방법으로 주로 심리학자와 건강 연구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예: Anson et al., 1996; McMichael & Manderson, 2004; Neto, 1995, 2001), 최근에는 많은 사회과학자가 이 분야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예: Ben Rafael et al., 1994; Massey & Redstone, 2006;

Vohra & Adir, 2000). 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민자들이 더 나은 경제 및 사회적 생활 수준에 대한 실현된 기대의 결과로 이민 후 행복 수준의 증가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여 왔다(Bartram, 2013). 지금까지 이민자에 관한 생활만족도의 대부분 국외 연구는 독일(Obuc'ina, 2013; Angelini et al., 2014)과 이스라엘(Amit, 2010)과 같이 하나의 국가적 맥락에서의 연구들과 출신지(국가) 측면에서 하나의 특정 이민자 집단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Baltatescu, 2007).

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먼저, 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는 체류 기간, 주류사회 성향, 차별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기간과 생활만족도 간의 연구에서 세대 효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생활만족도와 체류 기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Erlinghagen, 2011; Bartram, 2013), 다른 연구에서는 2세대가 1세대보다 삶에 덜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Safi, 2010).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류사회(원주민) 인구 중 우익 극단주의가 증가하면 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Knabe et al., 2013), Safi(2010)와 Kirmanoglu & Baslevent(2014)의 국가간 비교 연구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Helliwell & Putnam, 2004; Hooghe & Vanhoutte, 2011). 벨기에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Hooghe & Vanhoutte(2011)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언어 능력 또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이는 이민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관련 기술 및 자격 취득을 촉진한다(Chiswick, 1998, 2002; Walters et al., 2007). 또한 새로운 노동 시장에 통합하고 원주민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능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Chiswick, 2002).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가 문화적 요소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이민자 수용사회가 개인주의 지향 또는 집단주의 지향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Hofstede, 2001). 즉, 보다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웰빙은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므로 집단주의 지향의 사회보다 주관적 웰빙과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Diener et al., 1995; Inglehart, 1997). 예를 들어, 집단주의적인 국가에서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이주하는 이민자의 문화적 동화가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인과 이민자 간의 삶의 만족도 격차는 이민자들 사이에서 독일과의 문화적 동화 및 동일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Angelini et al. 2014). 즉, 독일인과 더 통합되고 동일시하는 이민자들이 그렇지 않은 이민자들보다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효과는 독일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2세대에 속하는 이민자들에게만 나타났다. 네덜란드

에 거주하는 터키인과 모로코인 이민자의 주관적 웰빙의 차이 역시 독일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 수준은 주류사회의 구성원과 비교하면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altatescu, 2005; Safi, 2010; Kirmanoglu & Baslevent, 2014). 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민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민자 수용사회의 특성에 의해 설명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민자 1세대나 2세대인가 또는 이민자 통합 수준이 높거나 낮은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다(Safi, 2010; Kirmanoglu & Baslevent, 2014). Massey와 Redstone(2006)의 연구는 미국에서 생활만족도가 높은 이민자들이 귀화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매개변수(예: 소득 수준)로 이민자 수용사회에서 이민자의 통합을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민자 자신의 통합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식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⁵⁾(Lester, 2005).

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국내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인 편이고, 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문화적응서비스 참여 요인(김안나·최승아, 2012; 이주재·김순규, 2010)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용 요인(황민철·문병기, 2017; 임동진, 2019)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김안나·최승아(2012)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중 정착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연령이 낮고, 배우자가 있고, 저학력, 미취업, 자녀 수가 많고, 필리핀 또는 일본 국가 출신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주재·김순규(2010)는 결혼이민자 중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인으로는 많은 자녀수, 낮은 가구소득, 높은 서비스 인지도, 높은 사회적 지망, 낮은 부부관계 친밀도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요인의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이 비교적 길고, 서울지역 거주, 한국인 친구 수가 적은 이민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황민철·문병기, 2017),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방문동거인, 서울지역 거주자, 기혼자, 베트남 출신 등이 중요한 참여 요인이었다(임동진, 2019). 최근 이민자들의 생활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 이동횟수, 건강상태,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등이 이민자들의 생활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임동진·김옥녀, 2021).

현대의 글로벌 디지털 첨단산업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속화된 인적 자

5) 비슷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들에서 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를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를 측정·비교하기 위해서는 주류 집단의 구성원들을 이민자 집단의 비교 집단으로 선정해야 한다(Simpson, 2011; Lessard-Phillips et al., 2015). 다음으로, 이민자 집단의 만족도 변화를 식별하기 위해 세대에 걸쳐 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Heath et al. 2008; Safi 2010). 마지막으로, 사회적 내재성 측면에서 주류 집단의 개인과 이민자 집단의 개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격차와 잠재적인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설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원의 양과 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고도로 숙련된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함으로써 “인재 유입(brain-gain)”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Iredale, 1999; Mahroum, 2001; Quaked, 2002). 따라서 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는 고도로 숙련된 이민자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생활만족도가 낮으면 다른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Brandi, 2001).

Ⅲ.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1. 설문조사 설계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공서비스와 생활만족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논산시⁶⁾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측정영역을 크게 보면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①인구학적 특성변수, ②사회학적 특성변수, ③공공서비스 및 생활만족도 변수로 구성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수준, 결혼여부를 포함하였고, 사회학적 특성 변수에는 출신국가 및 민족, 최초 외국인 등록시 체류 자격, 현재의 체류자격, 한국내 거주기간, 논산지역 거주기간, 한국내 생활지역 이동횟수, 동거 가구원 수, 건강 상태, 한국어 실력 수준을 포함하였다. 공공서비스 및 생활환경 만족도 변수⁷⁾는 공공서비스

6) 본 연구의 연구대상 지역인 논산시는 충남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2020년 9월 현재 인구 규모는 총 121,299명이고, 이 중 외국인 주민 수는 7,610명(논산시 인구의 6.2%)이다. 외국인 주민은 다시 외국인 이민자 5,945명(78.1%), 한국국적 취득한 이민자 529명(6.9%), 외국인 주민 자녀가 1,136명(14.9%)으로 구분될 수 있다. 외국인 이민자(5,945명) 중 외국인 근로자 2,411명(40.5%), 결혼이민자 498명(8.3%), 유학생 233명(3.9%), 외국 국적 동포 361명(6.0%), 기타 외국인 2,442명(41.0%)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이민자들의 국적을 보면(2018년 기준), 캄보디아 21.1%(864명), 베트남 15.7%(637명), 중국 12.0%(490명), 네팔 8.3%(338명), 태국 6.7%(273명), 우즈베키스탄 6.5%(266명), 필리핀 5.1%(206명) 등 순이다(정용덕 외, 2020).

7) 본 연구에서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공공서비스와 생활환경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로 ①의료서비스, ②공공기관 민원서비스, ③통·번역서비스로 설정하였고, 생활환경은 대중교통서비스, 생활편의시설 이용, 주거환경으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은 기존의 전국적인 통계조사인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주관으로 결혼이민자·귀화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법무부와 통계청이 주관으로 외국인 또는 귀화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생활환경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로 얻을 수 설문 문항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국적인 설문통계 자료로 관련

만족도(의료서비스,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통·번역서비스), 생활환경 만족도(대중교통서비스 + 생활편의시설 이용 + 주거환경),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공공서비스+생활환경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은 내용적 특성에 따라 선택형 설문문항, 직접기재형 설문문항, 5점 척도 설문문항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의 측정영역과 측정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내용 분석을 위한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집단간 차이분석(T-test, ANOVA), 최소자승법(OLS)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표 1〉 설문조사 측정변수들의 설명 및 측정방법

측정영역	측정변수의 설명 및 측정방법
인구학적 특성 변수	
성별	1=남성, 2=여성
연령	1=20-29세, 2=30-39세, 3=40-49세, 4=50세 이상
학력 수준	1=중졸이하, 2=고졸, 3=2년제 대학 졸업, 4=4년제 대학 졸업, 5=대학원 이상
결혼 여부	1=미혼, 2=배우자 있음, 3=이혼, 4=사별
사회학적 특성 변수	
출신국가나 민족	1=캄보디아, 2= 베트남, 3=네팔, 4=우즈베크, 5=태국, 6=카자흐스탄, 7=중국, 8=필리핀, 9=미얀마, 10=인도네시아, 11=동포, 12=기타
현재의 체류자격	1=방문취업(H-2), 2=전문인력(E-1~E7), 3=비전문취업(E-9), 4=투자(D-8), 무역경영(D-9), 5=재외동포(F-4), 6=결혼이민(F-6), 7=유학생(D-2, D4-1·7), 8=관광통과(B-2), 9=단기방문(C-3), 10=없음(체류기간 도과), 11=한국국적 취득
한국 내 체류(거주) 기간	한국에서 체류(거주)한 총 기간(개월 수)
논산 지역 체류(거주)기간	논산에서 체류(거주)한 총 기간(개월 수)
한국내 생활지역 이동횟수	한국에서 생활(거주)하면서 생활지역(사업장) 이동 횟수
동거 가구원 수	한국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수(본인 포함)
건강 상태	1개 설문항목 총합: 1(매우 건강치 않음)~5(매우 건강한 편) (1-5)
한국어 실력 수준	1개 설문항목 총합: 1(전혀 못 함)~5(매우 잘함) (1-5)
공공서비스 및 생활환경 만족도 변수	
공공서비스 만족도 (1-5점)	①의료서비스, ②공공기관(시청·동사무소 등) 이용 민원서비스, ③통·번역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생활환경 만족도 (3-15점)	생활환경 만족도 = (대중교통(버스·택시) 서비스 + 생활편의시설(슈퍼·마트) 이용 + 주택 등 주거환경 만족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6-30점)	공공서비스 만족도(의료+공공기관+통번역서비스) + 생활환경 만족도(대중교통+편의시설+주거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체류 외국인과 관계된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부(외국인고용지원센터), 또는 이들의 산하기관이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인 논산시의 입장에서 논산시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생활하거나 경험한 공공서비스와 생활환경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즉, 논산시 관내 외국인들이 체류유형과 관계없이 가장 중요하면서 공통적인 공공서비스와 생활환경에 초점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표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방법을 보면, 먼저, 설문조사 대상자는 2020년 현재 논산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이며, 2019년 12월 현재 논산시청에 등록된 외국인 이민자는 전체는 4,139명이다. 본 설문조사는 표본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표본집단을 전체모집단 4,139명에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4.94%p가 확보되는 360명으로 하였다. 표본추출과 표본배분 방식은 주로 체류자격을 고려한 유의할당 및 비례배분방식을 주로 활용하였다⁸⁾.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설문내용을 잘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표를 7개 언어(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로 번역을 하였으며, 그 외 언어는 한국어가 가능한 관련국 이민자들을 통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이민자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 & 컨설팅을 통해 진행되었고, 전문 조사요원들은 구조화된 한국어 설문지와 조사대상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활용해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고, 응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자기기입식 응답방법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7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2.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본 설문조사의 측정변수들에 관한 주요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로는 남성(65.3%)이 여성(34.7%)보다 약 2배 많고, 연령별로는 20대 41.4%, 30대 41.9%, 40대 10.6%, 50대 이상이 6.1%의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4년제 대졸 39.7%, 2년제 대졸 28.9%, 고졸 27.8%, 중졸이하 2.5%, 대학원이상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를 보면 기혼 59.2%, 미혼 38.9%, 이혼 1.4%, 사별 0.6%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주요 특성은 남성, 20~30대, 4년제 대졸, 기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사회학적 특성으로 출신국가나 민족을 보면 베트남(24.4%)이 가장 많고, 그다음 이 중국(13.9%), 필리핀(10.6%), 태국(10.0%), 캄보디아(9.4%), 우즈베크(7.8%), 네팔(6.4%), 미얀마(3.3%), 인도네시아(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체류자격(비자유형)을 보면 비전문

8) 설문조사 당시인 2020년의 경우, 코로나(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모든 행사나 모임이 취소되어 표집 틀을 구축하기 매우 어려웠다. 이에 조사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논산시청, 관내 대학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체 및 농장, 농장인력사무소, 다문화센터, 마을 이장, 이민자 단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협조 및 관련 정보를 취득하였고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탐색하고 선정하였다.

취업(47.8%), 결혼이민(16.7%), 유학생(13.9%)의 순으로 많고, 기타로 단기방문(9.2%), 재외동포(2.8%), 한국국적 취득(2.8%), 관광통과(1.9%), 전문인력(1.1%), 방문취업(0.8%), 투자·무역경영(0.8%), 불법체류(체류자격 없음)(2.8%) 등이 있다. 한국 내 체류 기간을 보면 1-3년 미만(43.1%)로 가장 많고, 3-5년미만(21.4%), 5년이상(19.4%), 1년미만(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산지역에서 체류 기간 역시 1-3년미만(45.0%)로 가장 많고, 3-5년미만(20.3%), 1년미만(17.5%), 5년이상(17.2%)의 순으로 대체로 비슷한 체류기간의 패턴을 보인다. 한국 내에서 생활지역 이동횟수를 보면 0회(이동없었음, 71.1%)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1회(14.7%), 2-3회(9.2%), 4회이상(5.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거 가구원수를 보면 1인(64.4%)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인(11.4%), 4인(11.1%), 3인(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이민자들의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한(4.3/5점) 편이고, 한국어 실력 수준은 다소 부족한 수준(2.6/5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중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3.5/5점,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는 3.4/5점, 통·번역서비스 만족도는 3.3/5점으로 나타났고, 생활환경 만족도는 11.7/15점,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22.0/30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표 2〉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

측정변수(N=360)	평균(표준편차) / %
인구학적 특성 변수	
성별	남성(65.3%), 여성(34.7%)
연령	20대(41.4%), 30대(41.9%), 40대(10.6%), 50대 이상(6.1%)
학력 수준	중졸이하(2.5%), 고졸(27.8%), 2년제 대졸(28.9%), 4년제 대졸(39.7%), 대학원 이상(1.1%)
결혼 여부	미혼(38.9%), 기혼(59.2%), 이혼(1.4%), 사별(0.6%)
사회학적 특성 변수	
출신국가나 민족	베트남(24.4%), 중국(13.9%), 필리핀(10.6%), 태국(10.0%), 캄보디아(9.4%), 우즈베크(7.8%), 네팔(6.4%), 미얀마(3.3%), 인도네시아(3.3%), 카자흐스탄(0.8%), 동포(0.6%), 기타(9.7%)
현재 체류자격(비자유형)	비전문취업(47.8%), 결혼이민(16.7%), 유학생(13.9%), 단기방문(9.2%), 재외동포(2.8%), 한국국적 취득(2.8%), 관광통과(1.9%), 전문인력(1.1%), 방문취업(0.8%), 투자·무역경영(0.8%), 불법체류(체류자격 없음)(2.8%)
한국 내 체류 기간	1년미만(16.1%), 1-3년미만(43.1%), 3-5년(21.4%), 5년이상(19.4%)
농산지역 체류 기간	1년미만(17.5%), 1-3년미만(45.0%), 3-5년(20.3%), 5년이상(17.2%)
한국내 생활지역 이동횟수	0회(71.1%), 1회(14.7%), 2-3회(9.2%), 4회이상(5.0%)
동거 가구원 수	1인(64.4%), 2인(11.4%), 3인(10.0%), 4인(11.1%), 5인(3.1%)
건강상태(1-5점)(표준편차)	4.3점(0.7점)
한국어 실력 수준(1-5점)	2.6점(0.9점)

측정변수(N=360)	평균(표준편차) / %
공공서비스 및 생활만족도 변수	
공공서비스 만족도(1-5점) (평균, 표준편차)	의료서비스 만족도 = (3.5점, 0.7점);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 (3.4점, 0.6점); 통·번역 서비스 만족도 = (3.3점, 0.6점)
생활환경 만족도(3-15점) (평균, 표준편차)	(대중교통서비스+생활편의시설이용+주거환경) = (11.7점, 2.4점)
전반적인 생활만족도(6-30점) (평균, 표준편차)	[공공서비스 만족도(15점)+생활환경 만족도(15점)] = (22.0점, 3.5점)

IV. 분석결과

1. 이민자 유형별 정착서비스 수요 분석

논산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 유형별로 정착서비스⁹⁾ 수요 분석에 앞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래야 이민자 유형별 특성과 함께 정착서비스 내용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 유형을 크게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외국인(단기방문자 등)으로 네 개의 집단¹⁰⁾으로 구분하였다. 성별로는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93.9%), 결혼이민자는 여성(100.0%), 유학생은 여성(76.0%), 기타 외국인은 남성(90.0%) 이 비율이 높다. 평균연령으로는 외국인근로자(32.7세), 결혼이민자(35.3세), 유학생(26.3세), 기타 외국인(36.1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중 4년제 대졸 이상의 비율로는 유학생(74.0%) 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결혼이민자(40.0%), 외국인근로자(36.7%), 기타 외국인(2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 중 기혼자 비율은 결혼이민자(91.4%), 기타 외국인(70.0%), 외국

9) 이민정책은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 체류관리, 정착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설동훈, 2016).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를 이민통제정책이라고 하고, 정착관리 또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이민자 정책이라고 한다(임동진, 2020). 정착서비스(settlement services)는 이민자 정책 중의 하나로 이민자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이다(Evans & Shields, 2014).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정착서비스는 신규 이민자들이 새로운 국가에서 정착 및 사회통합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는 초기의 적응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초기 적응 이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10) 의미 있는 분석결과와 내용이해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체류자격(유형)을 크게 네 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유형에는 비전문취업을 포함하였다. 결혼이민자 유형에는 결혼이민이 포함되었고, 유학생은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타 외국인에는 전문인력, 방문취업, 투자경영, 재외동포, 국적취득, 관광통과, 단기방문이 포함되어 있다.

인 근로자(59.4%)로 나타났다.

논산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한국에서의 생활(거주) 기간을 보면 결혼이민자가 8.56년으로 가장 길고, 그다음이 외국인 근로자(3.13년), 유학생(1.44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논산지역에서의 생활 기간도 약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동거 가구원 수는 결혼이민자가 3.09명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기타 외국인(2.92명), 유학생(1.12명), 외국인 근로자(1.06명)의 순이다.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기타 외국인(4.67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4.41점), 유학생(4.12점), 결혼이민자(3.73점)의 순이다.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는 유학생이 3.90점으로 가장 높은데 반해, 결혼이민자(2.64점), 외국인근로자(2.52점), 기타 외국인(2.03점)으로 보통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이민자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이민자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체류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외국인 근로자 (a, n=180)	결혼이민자 (b, n=70)	유학생 (c, n=50)	기타 외국인 (d, n=60)	평균 (표준편차) (N=360)	검증치 χ^2 / F-값	Scheffe
성별	남성	93.9	0.0	24.0	90.0	65.3	250.347***	-
	여성	6.1	100.0	76.0	10.0	34.7		
연령(세)		32.7	35.3	26.3	36.1	32.9 (8.01)	19.199***	a > c, a < d, b > c, c < d,
학력	고졸이하	39.4	28.6	16.0	16.7	30.3	52.211***	-
	2년대졸	23.9	31.4	10.0	56.7	28.9		
	4년대졸 이상	36.7	40.0	74.0	26.7	40.8		
결혼 여부	미혼·이혼	40.6	8.6	100.0	30.0	40.8	105.5262***	-
	기혼	59.4	91.4	0.0	70.0	59.2		
한국지역 내 총 생활기간(년)		3.13	8.56	1.44	0.80	3.56 (4.81)	49.785***	a < b, a > d, b > c, b > d,
논산지역 총 생활기간(년)		2.95	7.83	1.18	0.77	3.29 (4.39)	50.348***	a < b, a > c, a > d, b > c, b > d,
동거 가구원 수(명)		1.06	3.09	1.12	2.92	1.77 (1.18)	190.720***	a < b, a < d, b > c, c < d
건강상태(1-5점)		4.41	3.73	4.12	4.67	4.28 (0.70)	27.965***	a > b, b < c, b < d, c < d,
한국어 수준 (1-5점)		2.52	2.64	3.90	2.03	2.65 (0.94)	56.831***	a < c, a > d, b < c, b > d, c > d

* $p < 0.05$, ** $p < 0.01$, *** $p < 0.001$

이민자 유형별로 논산지역에서 적응·생활하는데 필요한 정착서비스에 대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체류 및 생활 고충 상담이 46.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총 체류기간의 연장(10.6%),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8.9%), 이주민 교류를 통한 다양한 문화 활동(8.3%), 부당한 차별과 폭력 등 보호활동(6.7%), 취업 관련 정보제공 및 일자리 소개(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성별, 연령 및 체류기간에 따라서 정착서비스가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체류 및 생활고충 상담 외에 남성은 총체류기간 연장(11.2%)을, 여성은 보호활동(18.2%)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는 다양한 문화 활동(11.9%), 30대는 체류기간 연장(10.9%), 40대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18.8%)로 나타났다. 체류기간별로는 1년 미만은 다양한 교육의 기회(66.7%)인데 반해, 3-5년미만은 체류기간 연장(15.8%)으로 나타났다.

〈표 4〉 외국인 근로자: 정착에 가장 필요한 정착프로그램

필요한 것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체 (%)	x ² / Cramer's V
성별	남성 (n=169)	46.2	5.9	8.3	3.6	4.7	8.9	11.2	1.2	4.1	1.8	3.6	0.6	100.0	6.021 / 0.183
	여성 (n=11)	45.5	18.2	9.1	9.1	9.1	9.1	0.0	0.0	0.0	0.0	0.0	0.0	100.0	
연령	20대 (n=59)	52.5	1.7	11.9	3.4	5.1	6.8	10.2	1.7	3.4	1.7	1.7	0.0	100.0	74.782*** / 0.372***
	30대 (n=101)	45.5	8.9	6.9	4.0	5.0	8.9	10.9	0.0	5.0	2.0	3.0	0.0	100.0	
	40대 (n=16)	37.5	12.5	0.0	0.0	6.3	18.8	6.3	6.3	0.0	0.0	12.5	0.0	100.0	
	50대이상 (n=4)	0.0	0.0	25.0	25.0	0.0	0.0	25.0	0.0	0.0	0.0	0.0	25.0	100.0	
체류기간	1년미만 (n=6)	33.3	0.0	0.0	0.0	0.0	66.7	0.0	0.0	0.0	0.0	0.0	0.0	100.0	55.599** / 0.321**
	1-3년미만 (n=91)	56.0	4.4	8.8	5.5	4.4	5.5	6.6	1.1	2.2	1.1	4.4	0.0	100.0	
	3-5년미만 (n=57)	38.6	10.5	5.3	1.8	8.8	5.3	15.8	1.8	7.0	3.5	1.8	0.0	100.0	
	5년이상 (n=26)	30.8	7.7	15.4	3.8	0.0	15.4	15.4	0.0	3.8	0.0	3.8	3.8	100.0	
전체 (N=180)		46.1	6.7	8.3	3.9	5.0	8.9	10.6	1.1	3.9	1.7	3.3	0.6	100.0	

범례: 1=체류 및 생활고충 상담, 2=부당한 차별과 폭력 등 보호 활동, 3=이주민 교류를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 4=임금체불 등에 대한 안전장치, 5=취업 관련 정보제공 및 일자리 소개, 6=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 7=총 체류기간의 연장, 8=논산지역 생활정보 서비스, 9=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 10=통번역서비스, 11=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 12=보험가입 및 보상지원

* $p < 0.05$, ** $p < 0.01$, *** $p < 0.001$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부(중앙정부 또는 논산시)가 추가로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정착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어 교육(일반 한국어,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이 5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체류 및 국적상당 지원(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15.6%), 근로상당 및 지원정책(임금체불, 산업재해, 사업장 변경, 근로조건 등)(12.2%), 인권지원정책(직장 내 인권침해 등) (8.3%), 의료지원정책(건강보험, 의료기관 연결 등)(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연령 및 체류기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착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5〉 외국인 근로자: 추가로 제공이 필요한 정착프로그램

필요한 것		1	2	3	4	5	6	7	8	전체 (%)	x ² / Cramer's V
성별	남성 (n=169)	53.3	13.0	7.7	14.8	7.7	1.8	0.6	1.2	100.0	5.070 / 0.168
	여성 (n=11)	54.5	0.0	0.0	27.3	18.2	0.0	0.0	0.0	100.0	
연령	20대 (n=59)	52.5	10.2	8.5	16.9	6.8	3.4	0.0	1.7	100.0	23.039 / 0.207
	30대 (n=101)	56.4	12.9	5.0	14.9	8.9	1.0	1.0	0.0	100.0	
	40대 (n=16)	50.0	12.5	6.3	12.5	12.5	0.0	0.0	6.3	100.0	
	50대이상 (n=4)	0.0	25.0	50.0	25.0	0.0	0.0	0.0	0.0	100.0	
체류 기간	1년미만 (n=6)	66.7	16.7	16.7	0.0	0.0	0.0	0.0	0.0	100.0	13.497 / 0.158
	1-3년미만 (n=91)	56.0	9.9	5.5	16.5	8.8	2.2	1.1	0.0	100.0	
	3-5년미만 (n=57)	50.9	15.8	5.3	15.8	7.0	1.8	0.0	3.5	100.0	
	5년이상 (n=26)	46.2	11.5	15.4	15.4	11.5	0.0	0.0	0.0	100.0	
전체 (N=180)		53.3	12.2	7.2	15.6	8.3	1.7	0.6	1.1	100.0	

범례: 1=한국어 교육(일반 한국어,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2=근로상당 및 지원정책(임금체불, 산업재해, 사업장 변경, 근로조건 등), 3=의료지원정책(건강보험, 의료기관 연결 등), 4=체류 및 국적상당지원(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5=인권지원정책(직장 내 인권침해 등), 6=정착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이용, 7=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지원 등), 8=방문동거(가족) F-1 취업 허가

* $p < 0.05$, ** $p < 0.01$, *** $p < 0.001$

다음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정부(중앙정부 또는 논산시)가 제공하는 정착프로그램 중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어지원정책이 3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가정내 갈등조율정책(14.3%), 결혼이주여성 전담 법률지원정책(12.9%), 시부모 인식개선 교육 및 관공서, 일반기업 다문화 수용성 교육(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의 연령 및 체류기간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정착프로그램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대에서 40대까지는 한국어지원정책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50대이상은 가정내 갈등조율정책, 시부모 인식개선 및 다문화 수용성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체류기간별로는 1~5년 미만까지는 한국어지원정책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5년 이상은 가정내 갈등조율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6〉 결혼이민자: 개선이 필요한 정착프로그램

필요한 것		1	2	3	4	5	6	7	8	전체 (%)	x ² / Cramer's V
특성별											
성별	남성 (n=)	-	-	-	-	-	-	-	-	-	-
	여성 (n=70)	37.1	5.7	14.3	12.9	11.4	7.1	7.1	4.3	100.0	
연령	20대 (n=25)	60.0	0.0	0.0	8.0	12.0	8.0	8.0	4.0	100.0	26.164 / 0.353
	30대 (n=20)	30.0	5.0	20.0	20.0	10.0	5.0	5.0	5.0	100.0	
	40대 (n=16)	25.0	12.5	18.8	12.5	0.0	12.5	12.5	6.3	100.0	
	50대이상 (n=9)	11.1	11.1	33.3	11.1	33.3	0.0	0.0	0.0	100.0	
체류 기간	1년미만 (n=9)	44.4	0.0	0.0	0.0	33.3	22.2	0.0	0.0	100.0	37.307 / 0.421*
	1-3년미만 (n=15)	66.7	0.0	0.0	26.7	0.0	0.0	6.7	0.0	100.0	
	3-5년미만 (n=10)	50.0	0.0	10.0	0.0	10.0	0.0	20.0	10.0	100.0	
	5년이상 (n=36)	19.4	11.1	25.0	13.9	11.1	8.3	5.6	5.6	100.0	
전체 (N=70)		37.1	5.7	14.3	12.9	11.4	7.1	7.1	4.3	100.0	

범례: 1=한국어지원정책(일반 한국어,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2=부모교육지원정책(아동 성장 과정 및 육아 교육, 학부모 교육 등), 3=가정 내 갈등조율정책(남편, 자녀, 시댁, 친가 관련 갈등 등), 4=결혼이주여성 전담 법률지원정책(혼인 및 이혼, 가정내폭력 관련지원 등), 5=시부모 인식개선 교육 및 관공서, 일반기업 다문화 수용성 교육, 6=취·창업 교육 및 창업관련 실습기관 필요, 7=모국방문 지원사업 완화(5년→3년이상) 또는 국적 취득자 우선, 8=없음

* $p < 0.05$, ** $p < 0.01$, *** $p < 0.001$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위해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착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취업지원정책(결혼이민자 당사자 및 가족 취업 교육 등)이 5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대상 모국어지원정책(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족대상 이중 언어 교육 등)(12.9%), 다양한 문화 이해 정책(가정내 인권 교육, 법률 교육 등)(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의 연령 및 체류기간에 따라서 추가로 제공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대에서 40대까지는 취업지원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50대이상은 다양한 문화 이해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체류기간별로는 1~5년 미만까지는 취업지원정책이 55.6~90.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5년 이상은 36.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다문화 문화 이해교육(16.7%), 모국어지원정책(11.1%) 등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7〉 결혼이민자: 추가로 제공이 필요한 정착프로그램

특성별		추가로 필요한 것										전체 (%)	x ² / Cramer's V
		1	2	3	4	5	6	7	8	9			
성별	남성 (n=)	-	-	-	-	-	-	-	-	-	-	-	
	여성 (n=70)	52.9	4.3	12.9	4.3	11.4	1.4	2.9	5.7	4.3	100.0		
연령	20대 (n=25)	72.0	0.0	16.0	0.0	4.0	0.0	0.0	4.0	4.0	100.0	39.774 / 0.435*	
	30대 (n=20)	65.0	0.0	15.0	0.0	5.0	0.0	5.0	10.0	0.0	100.0		
	40대 (n=16)	25.0	18.8	0.0	12.5	18.8	6.3	6.3	6.3	6.3	100.0		
	50대이상 (n=9)	22.2	0.0	22.2	11.1	33.3	0.0	0.0	0.0	11.1	100.0		
체류 기간	1년미만 (n=9)	55.6	0.0	11.1	0.0	11.1	0.0	0.0	11.1	11.1	100.0	19.885 / 0.308	
	1-3년미만 (n=15)	66.7	0.0	20.0	0.0	6.7	0.0	0.0	6.7	0.0	100.0		
	3-5년미만 (n=10)	90.0	0.0	10.0	0.0	0.0	0.0	0.0	0.0	0.0	100.0		
	5년이상 (n=36)	36.1	8.3	11.1	8.3	16.7	2.8	5.6	5.6	5.6	100.0		
전체 (N=70)		52.9	4.3	12.9	4.3	11.4	1.4	2.9	5.7	4.3	100.0		

범례: 1=취업지원정책(결혼이민자 당사자 및 가족취업 교육 등), 2=자녀양육지원정책(육아 및 학부모 교육, 교육시스템 및 상담 교육 등), 3=다문화가정 대상 모국어 지원 정책(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족대상 이중 언어 교육 등), 4=가정 내 폭력 상담 및 지원정책(가정 내 인권 교육, 법률 교육 등), 5=다양한 문화 이해 정책(한국과 모국 등 문화차이, 세계 다양한 문화 이해 교육 등), 6=다양한 여가생

할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 7=가족단위 취미활동 프로그램, 8=실용적인 정부 수집이 가능한 홈페이지(출입국 및 체류관련, 관내 관공서 기관 안내, 생활정보 등), 9=중도입국자녀 기관소통을 위한 국가별 통·번역 현장서비스

* $p < 0.05$, ** $p < 0.01$, *** $p < 0.001$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당국이 제공하는 정착프로그램 중 개선이 필요한 것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활동 등의 기회 확대가 48.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국어(전공 관련 튜터링) 프로그램의 내실화(24.0%), 유학생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거주공간(공간확보 및 기숙사 내 조리시설)(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의 성별, 연령 및 체류기간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것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성별로는 여성이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거주 공간(10.5%)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는 30대보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체류기간별로는 1년 미만은 주로 유학생 학생회 등 지원 강화(25.0%), 1~3년 미만은 한국어 프로그램의 내실화(28.6%)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8〉 외국인 유학생: 개선이 필요한 정착프로그램

특성별		개선이 필요한 것								전체 (%)	x ² / Cramer's V
		1	2	3	4	5	6	7	8		
성별	남성 (n=12)	41.7	41.7	0.0	0.0	0.0	8.3	8.3	0.0	100.0	6.826 / 0.369
	여성 (n=38)	50.0	18.4	10.5	7.9	2.6	2.6	2.6	5.3		
연령	20대 (n=46)	45.7	23.9	8.7	6.5	2.2	4.3	4.3	4.3	100.0	1.880 / 0.194
	30대 (n=4)	75.0	25.0	0.0	0.0	0.0	0.0	0.0	0.0		
체류기간	1년미만 (n=8)	62.5	0.0	0.0	0.0	0.0	25.0	12.5	0.0	100.0	16.828 / 0.580*
	1-3년미만 (n=42)	45.2	28.6	9.5	7.1	2.4	0.0	2.4	4.8		
전체 (N=50)		48.0	24.0	8.0	6.0	2.0	4.0	4.0	4.0	100.0	

범례: 1=한국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활동 등의 기회 확대, 2=한국어(전공 관련 튜터링) 프로그램 내실화, 3=유학생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거주 공간(공간 확보 및 기숙사 내 조리시설), 4=유학생 심리상담 및 멘토링 지원, 5=유학생 학생회 등 지원 강화, 6=장학금 지원제도 확대, 7=유학생 교내외 교외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 8=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내문화행사 강화

* $p < 0.05$, ** $p < 0.01$, *** $p < 0.001$

정부(중앙정부 또는 논산시)가 유학생 유치나 거주기간 동안 제공하기를 기대하는 정착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졸업 후 취업, 영주권, 국적취득 제도 개선이 4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유학생 고용허가 제도 허용(18.0%), 졸업 후 진로 및 구직정보 제공(16.0%), 취업연계 프로그램 확대(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의 성별, 연령 및 체류기간에 따라 기대하는 정착프로그램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발굴(16.7%)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는 20대에 비해 유학생 고용허가제도 허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체류기간별로 1년 미만 역시 유학생 고용허가제도 허용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30대이고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의 유학생들은 유학생 고용허가제도 허용까지는 기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유학생: 추가로 기대하는 정착프로그램

특성별		제공요청 프로그램	1	2	3	4	5	6	7	전체 (%)	x2 / Cramer's V
		성별	남성 (n=12)	33.3	25.0	8.3	16.7	0.0	0.0	16.7	100.0
	여성 (n=38)	47.4	15.8	18.4	13.2	2.6	2.6	0.0	100.0		
연령	20대 (n=46)	43.5	19.6	15.2	13.0	2.2	2.2	4.3	100.0	1.762 / 0.188	
	30대 (n=4)	50.0	0.0	25.0	25.0	0.0	0.0	0.0	100.0		
체류 기간	1년미만 (n=8)	62.5	0.0	12.5	12.5	0.0	0.0	12.5	100.0	4.644 / 0.305	
	1-3년미만 (n=42)	40.5	21.4	16.7	14.3	2.4	2.4	2.4	100.0		
전체 (N=50)		44.0%	18.0%	16.0%	14.0%	2.0%	2.0%	4.0%	100.0		

범례: 1=졸업후 취업, 영주권, 국적취득 제도 개선, 2=유학생에게 고용허가제도 허용, 3=졸업후 진로탐색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4=취업연계프로그램 확대 지원, 5=다문화센터 등을 통한 외국인 커뮤니티 구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6=대학원생 자녀 교육지원 강화, 7=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발굴

* $p < 0.05$, ** $p < 0.01$, *** $p < 0.001$

위에서 논의한 이민자 유형별 필요한 정착서비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가장 필요한 정착서비스로는 체류 및 생활 고충 상담(46.1%), 총 체류기간의 연장(10.6%),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8.9%) 등이고, 추가로 필요한 정착

서비스로는 한국어 교육(53.3%), 체류 및 국적 상담 지원(15.6%), 근로상담 및 지원정책(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개선이 필요한 정착서비스로는 한국어지원정책(37.1%), 가정내 갈등조율정책(14.3%), 결혼이주여성 전담 법률지원정책(12.9%), 시부모 인식개선 교육 및 관공서, 일반기업 다문화 수용성 교육(11.4%) 등이고, 추가로 필요한 정착서비스로는 취업지원정책(52.9%), 다문화가정 대상 모국어지원정책(12.9%), 다양한 문화 이해 정책(11.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개선이 필요한 정착서비스로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활동 등의 기회 확대(48.0%), 한국어(전공 관련 튜터링) 프로그램의 내실화(24.0%), 유학생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거주공간(공간확보 및 기숙사 내 조리시설)(8.0%) 등이고, 추가로 기대하는 정착프로그램으로는 졸업 후 취업, 영주권, 국적취득 제도 개선(40.5%), 유학생 고용허가 제도 허용(18.0%), 졸업 후 진로 및 구직정보 제공(16.0%), 취업연계 프로그램 확대(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이민자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정착서비스는 서로 상이했고, 추가로 필요로 하는 정착서비스 역시 각 이민자 집단의 체류 목적과 정착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이민자 유형별 필요한 정착서비스 비교

유형별 정착서비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개선이 필요한 정착프로그램	① 체류 및 생활 고충 상담 (46.1%) ② 총 체류 기간의 연장(10.6%) ③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8.9%)	① 한국어 지원 정책(37.1%) ② 가정 내 갈등조율 정책 (14.3%) ③ 결혼이주여성 전담 법률지원정책(12.9%) ④ 시부모 인식개선 교육 및 관공서, 일반기업 다문화 수용성 교육(12.9%)	①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활동 등의 기회 확대(48.0%) ② 한국어 프로그램의 내실화 (24.0%) ③ 유학생 편의시설의 거주공간(8.0%)
추가로 필요한 정착프로그램	① 한국어 교육(53.3%) ② 체류 및 국적 상담 지원 (15.6%) ③ 근로 상담 및 지원정책 (12.2%)	① 취업 지원 정책(52.9%) ② 다문화가정 대상 모국어 지원 정책(12.9%) ③ 다양한 문화 이해 정책 (11.4%)	① 졸업 후 취업, 영주권, 국적취득 제도 개선 (40.5%) ② 유학생 고용허가 제도 허용 (18.0%) ③ 졸업 후 진로 및 구직정보 제공(16.0%) ④ 취업연계 프로그램 확대 (14.0%)

2. 이민자 유형별 생활만족도와 영향요인 분석

이민자들이 논산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험한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이 이용한 의료서비스(진료 및 치료), 공공기관들(시청, 읍면동사무소 등)의 민원서비스, 통·번역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공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1-5점 척도), 의료서비스 만족도(3.47점)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공공기관 민원서비스(3.44점), 통·번역서비스 만족도(3.3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별로 공공서비스 만족도 수준을 비교해 보면,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경우(1-5점 척도) 외국인 근로자가 3.71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결혼이민자(3.37점), 유학생(3.18점), 기타외국인(3.13점)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는 분산분석(ANOVA)의 사후분석(Scheffe) 결과, 외국인근로자와 나머지 집단(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외국인) 간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근로자가 나머지 집단보다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3.64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결혼이민자(3.43점), 기타외국인(3.13점), 유학생(3.1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통계적 차이 분석결과,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 기타외국인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외국인근로자가 유학생과 기타외국인에 비해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만족도가 높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통·번역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3.46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3.41점), 기타외국인(3.32점), 유학생(2.76점)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통계적 차이 분석결과,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기타외국인이 하나의 집단으로 유학생이 다른 집단으로 분류가 된다. 즉,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기타외국인은 통·번역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지만, 유학생은 불만족하고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들의 생활환경 만족도는 대중교통서비스(버스 택시 등) 이용 만족도(1-5점 척도), 생활편의시설(슈퍼, 마트 등) 이용 만족도(1-5점 척도), 주택 등 주거환경 만족도(1-5점 척도)인 3개 분야의 만족도 점수합계로 측정하였다.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3-15점 척도), 결혼이민자가 13.18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기타외국인(12.76점), 외국인 근로자(11.96점), 유학생(8.04점)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통계적 차이 분석결과, 모든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특히 유학생과 타 집단 간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기타외국인은 생활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반면, 유학생은 보통수준으로 응답하였다.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공공서비스(의료+민원+통·번역서비스) 3개 영역과 생활환경(교통+편의시설+주거환경) 만족도 3개 영역의 점수 합계로 측정하였다.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조사 결과(6-30점 척도), 결혼이민자가 23.44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22.71점), 기타외국인(22.40점), 유학생(17.1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통계적 차이 분석결과,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기타외국인과 유학생은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기타외국인은 논산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학생은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이민자들의 공공서비스 및 생활만족도 수준을 정리하면, 공공서비스 만족도는 의료서비스(3.47점), 공공기관 민원서비스(3.44점), 통·번역서비스 만족도(3.32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민자 집단별로는 외국인근로자는 의료서비스와 공공기관 민원서비스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결혼이민자는 통·번역서비스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유학생은 의료서비스, 민원서비스에 대해선 보통수준이었고, 통·번역서비스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환경 만족도에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기타외국인은 만족한 반면, 유학생들은 보통으로 만족하지 못하였고,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서 역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기타외국인은 만족한 반면, 유학생들은 보통수준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자 집단별로 공공서비스, 생활환경,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서 선호가 다르고 만족 수준 역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1〉 이민자 집단별 생활만족도 수준의 비교(ANOVA)

만족도	체류유형별	외국인 근로자 (a, 180)	결혼이민자 (b, 70)	유학생 (c, 50)	기타 외국인 (d, 60)	평균 (표준편차) (합계=360)	F-값	Scheffe
의료서비스 만족도 (1-5점척도)		3.71	3.37	3.18	3.13	3.47(0.72)	15.487***	a > b, a > c, a > d
공공기관(시청 등) 민원서비스 만족도 (1-5점척도)		3.64	3.43	3.12	3.13	3.44(0.69)	13.707***	a > c, a > d
통·번역서비스 만족도 (1-5점척도)		3.41	3.46	2.76	3.37	3.32(0.66)	15.434***	a > c, b > c, c < d
생활환경 만족도 (교통+편의+주거) (3-15점척도)		11.96	13.18	8.04	12.76	11.79(2.43)	86.981***	a < b, a > c, a < d, b > c, c < d

만족도	체류유형별 외국인 근로자 (a, 180)	결혼이민자 (b, 70)	유학생 (c, 50)	기타 외국인 (d, 60)	평균 (표준편차) (합계=360)	F-값	Scheffe
전반적 생활만족도 (의료+민원+통·번역+ 교통+편의+주거) (6-30점척도)	22.71	23.44	17.10	22.40	22.02(3.49)	58.553***	a > c, b > c, c < d

*** $p < 0.001$, ** $p < 0.01$, * $p < 0.05$

이민자들이 논산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면서 경험한 공공서비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공공서비스(의료서비스, 민원서비스, 통·번역서비스) 만족도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최소자승법(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에는 ①개인특성변수(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②지역권 출신국가 변수¹¹⁾(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동아시아 국가 출신,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기타 국가 출신), ③체류자격(비자) 변수(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외국인), ④생활적응변수(논산지역 거주기간, 한국내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 동거가 구원수,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정착서비스 경험여부), ⑤조절변수(거주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로 각각 구성하였다.

먼저, 이민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95% 신뢰수준($p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는 외국인근로자($b=0.354$), 논산지역 거주기간($b=0.044$), 거주기간×건강상태(조절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일수록, 논산지역에서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기간과 건강상태가 좋은 이민자일수록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자들의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95% 신뢰수준($p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이 통·번역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95% 신뢰수준($p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b=0.568$), 동아시아 국가출신($b=0.646$),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b=0.468$), 유학생($b=-0.517$),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b=-0.043$)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동아시아 국가 출신,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일수록 통·번역서비스 만족도가

11) 출신국가를 지역권 출신국가로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개의 지역권(동남아시아, 중국·몽골, 중앙아시아, 기타 국가) 출신국가로 분류하였다. 먼저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얀마, 싱가포르 등을 포함하였다. 동아시아 국가에는 중국, 몽골을 포함하였고, 중앙아시아 국가에는 네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부탄 등이 포함되었다. 기타 국가에는 동티모르, 러시아, 일본, 브라질, 멕시코, 미국, 가나, 프랑스 등을 포함하였다.

높고, 유학생일수록,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가 많은 이민자일수록 통·번역서비스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이민자들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OLS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공공서비스의 만족도 수준					
		의료서비스 만족도(1-5점)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만족도(1-5점)		통·번역서비스 만족도(1-5점)	
		b	β	b	β	b	β
성별(여성=0)		.060	.039	-.006	-.004	-.156	-.111
연령		-.010	-.111	-.007	-.078	.001	.013
교육수준		.020	.025	-.037	-.048	.082	.111
결혼여부(미혼·싱글=0)		-.005	-.003	.030	.022	.136	.101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그외=0)		-.076	-.050	.080	.055	.568**	.404
동아시아 국가 출신(그외=0)		-.217	-.110	.155	.082	.646**	.354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그외=0)		-.243	-.120	.193	.099	.468*	.250
외국인근로자(그외=0))		.354*	.245	.289	.209	.050	.037
결혼이민자(그외=0)		-.019	-.010	.164	.088	-.118	-.066
유학생(그외=0)		-.111	-.053	-.193	-.096	-.517*	-.268
논산지역 거주기간		.044**	.269	.016	.103	-.001	-.009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		-.012	-.030	-.034	-.091	-.043*	-.120
동거가구원수		-.007	-.011	-.036	-.062	.008	.014
건강상태(5점 척도)		-.002	-.002	.133	.136	.100	.107
한국어 능력(5점 척도)		-.026	-.034	.038	.052	-.049	-.069
정착서비스 경험여부(무경험=0)		-.334*	-.128	-.186	-.074	.041	.017
거주기간×건강상태(상호작용효과)		.032*	.211	.016	.108	.009	.067
거주기간×한국어능력(상호작용효과)		.001	.010	.003	.031	.007	.075
Constant		3.918		3.053		2.259	
R ² / Adjusted R ²		0.145 / 0.100		0.149 / 0.104		0.200 / 0.158	
F-Value, Sig		3.214 / 0.000		3.319 / 0.000		4.743 / 0.000	
Durbin-Watson		1.379		1.461		1.570	

더미변수 참조집단: 기타국가 출신, 기타 외국인(단기방문자 등)

* <0.05, ** <0.01, *** <0.001

다음으로, 이민자들의 생활환경(대중교통+생활편의시설+주거환경)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95% 신뢰수준($p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b=1.221$), 동아시아 국가 출신($b=1.550$), 외국인근로자($b=-0.961$), 유학생($b=-4.243$),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b=-0.307$), 건강상태($b=1.075$)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 출신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이민자일수록 생활환경 만족도가 높은 반면, 외국인근로자일수록, 유학생일수록,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가 많을수록 생활환경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회귀계수(β)의 값을 보면, 유학생($\beta=-0.603$), 건강상태($\beta=0.312$),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beta=0.238$),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beta=-0.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학생, 이민자의 건강상태, 동남아시아 국가출신,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의 순으로 생활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료+민원+통·번역+대중교통+편의시설+주거환경)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95% 신뢰수준($p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b=1.793$), 동아시아 국가 출신($b=2.134$), 유학생($b=-5.064$),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b=-0.396$), 건강상태($b=1.307$)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 출신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한 이민자일수록 논산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은 반면, 유학생일수록,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가 많을수록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회귀계수(β)의 값을 보면, 유학생($\beta=-0.502$), 건강상태($\beta=0.365$),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beta=0.244$), 동아시아 국가 출신($\beta=0.223$),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beta=-0.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학생, 건강상태,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동아시아 국가 출신,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의 순으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분석(OLS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생활환경 만족도 (대중교통+편의시설+주거환경) (5-15점)		전반적 생활만족도 (의료+민원+통·번역+대중교통+편의+주거환경) (5-30점)	
		b	β	b	β
성별(여성=0)		-.307	-.060	-.410	-.056
연령		.006	.020	-.010	-.022
교육수준		-.006	-.002	.060	.015
결혼여부(미혼·싱글=0)		.245	.049	.407	.057

독립변수	종속변수	생활환경 만족도 (대중교통+편의시설+주거환경) (5-15점)		전반적 생활만족도 (의료+민원+통·번역+대중교통+편의+주거환경) (5-30점)	
		b	β	b	β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그외=0)		1.221*	.238	1.793*	.244
동아시아 국가 출신(그외=0)		1.550**	.232	2.134*	.223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그외=0)		1.080	.158	1.498	.153
외국인근로자(그외=0))		-.961*	-.197	-.268	-.038
결혼이민자(그외=0)		.365	.056	.393	.042
유학생(그외=0)		-4.243***	-.603	-5.064***	-.502
논산지역 거주기간		-.025	-.044	.035	.043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		-.307***	-.235	-.396***	-.211
동거가구원수		-.094	-.046	-.129	-.044
건강상태(5점 척도)		1.075***	.312	1.307***	.265
한국어 능력(5점 척도)		-.220	-.086	-.257	-.070
정착서비스 경험여부(무경험=0)		-.063	-.007	-.541	-.043
거주기간×건강상태(상호작용효과)		-.055	-.108	.002	.002
거주기간×한국어능력(상호작용효과)		.007	.022	.018	.038
Constant		17.156			
R ² / Adjusted R ²		0.545 / 0.521		0.439 / 0.410	
F-Value, Sig		22.702 / 0.000		14.845 / 0.000	
Durbin-Watson		1.678			

더미변수 참조집단: 기타국가 출신, 기타외국인(단기방문자 등)

* <0.05, ** <0.01, *** <0.001

위에서 논의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이민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국인근로자, 논산지역 거주기간, 거주기간×건강상태(조절효과)이고, 통·번역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동아시아 국가 출신,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의 생활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남아시아 국가출신, 동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 건강상태로 나타났고,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동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 건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민자들의 공공서비스 및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서비스의 성격과 이민자들을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각기 다른 만족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도시 중의 하나인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유형별로 정착에 필요한 정착서비스는 무엇이고, 이들의 생활만족도 수준과 관련 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필요한 정착서비스로는 체류 및 생활 고충 상담(46.1%), 총 체류기간의 연장(10.6%),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8.9%)의 순이고, 추가로 필요한 정착서비스로는 한국어 교육(53.3%), 체류 및 국적 상담 지원(15.6%), 근로상담 및 지원정책(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필요한 정착서비스로는 한국어지원정책(37.1%), 가정내 갈등조율정책(14.3%), 결혼이주여성 전담 법률지원정책(12.9%), 시부모 인식개선 교육 및 관공서, 일반기업 다문화 수용성 교육(11.4%) 등이고, 추가로 필요한 정착서비스로는 취업지원정책(52.9%), 다문화가정 대상 모국어지원정책(12.9%), 다양한 문화 이해 정책(11.4%)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정착서비스로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활동 등의 기회 확대(48.0%), 한국어(전공 관련 튜터링) 프로그램의 내실화(24.0%), 유학생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주거공간(공간확보 및 기숙사 내 조리시설)(8.0%) 등이고, 추가로 기대하는 정착프로그램으로는 졸업 후 취업, 영주권, 국적취득 제도 개선(40.5%), 유학생 고용허가 제도 허용(18.0%), 졸업 후 진로 및 구직정보 제공(16.0%), 취업연계 프로그램 확대(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민자들의 공공서비스 만족도(1-5점 척도)는 의료서비스(3.47점), 공공기관 민원서비스(3.44점), 통·번역서비스 만족도(3.32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민자 집단별로는 외국인 근로자는 의료서비스(3.71점)와 공공기관 민원서비스(3.64점)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결혼이민자는 통·번역서비스(3.46점)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유학생은 의료서비스(3.18점), 민원서비스(3.12점)에 대해선 보통수준이었고, 통·번역서비스(2.76점)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민자들의 생활환경(교통+편의시설+주거환경) 만족도(3-15점 척도)에서 결혼이민자(13.18점), 외국인근로자(11.96점), 기타외국인(12.76점)은 만족한 반면, 유학생들은 보통(8.04점)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6-30점 척도)에서

역시 결혼이민자(23.44점), 외국인근로자(22.71점), 기타외국인(22.40점)은 만족한 반면, 유학생(17.10점)들은 보통수준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이민자들의 공공서비스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외국인근로자일수록, 논산지역에서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기간과 건강상태가 좋은 이민자일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공공기관 민원서비스는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통번역서비스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 동아시아 국가 출신,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일수록 통·번역서비스 만족도가 높았고, 유학생일수록,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가 많은 이민자일수록 통·번역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다.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의 생활환경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 출신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이민자일수록 생활환경 만족도가 높은 반면, 외국인근로자일수록, 유학생일수록,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가 많을수록 생활환경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 출신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한 이민자일수록 논산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반면, 유학생일수록, 생활거주지역 이동횟수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에 거주하는 이민자 유형별 정착서비스 제공과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 유형별로 거주와 정착에 필요한 정착서비스가 서로 동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는 이민자들이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Berry & Hou, 2017; Schroeter & James, 2015). 또한, 이를 위해 이민자를 위한 일반적인 정착서비스인 ①언어 습득 및 능숙도, ②고용 관련 서비스, ③주택, ④정보 워크숍 및 정착 상담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iemiatycki & Triadafilopoulos, 2010).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정착서비스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 및 생활 고충 상담(46.1%), 체류기간 연장(10.6%)을 우선시하였고,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지원정책(37.1%), 가정내 갈등조율정책(14.3%), 결혼이주여성 전담 법률지원정책(12.9%)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활동 등의 기회 확대(48.0%), 한국어(전공 관련 튜터링) 프로그램의 내실화(24.0%)로 나타나 이민자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정착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 이는 Evans & Shields(2014)가 주장했듯이 이민자들의 정착과정은 순응(adjustment), 적응(adaptation), 통합(integration)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착서비스는 정착과정으로 본다면 순응 및 적응과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각 이민자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정착서비스는 각 이민자의 체류 목적과 정착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캐나다의 시리아 난민을 대상 연구에서도 필요

한 정착서비스는 지역사회와의 연결(50.3%), 언어교육(34.1%), 취업 및 일자리(12.3%), 취업 정보서비스(12.3%) 등이 있었다(Immigration, Refugee & Citizenship Canada, 2017).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추가로 필요한 정착서비스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교육(53.3%), 체류 및 국적 상담 지원(15.6%)을 원했고, 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지원정책(52.9%), 다문화가정 대상 모국어지원정책(12.9%)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취업, 영주권 및 국적취득 제도 개선(40.5%), 유학생 고용허가 제도 허용(18.0%), 졸업 후 진로 및 구직정보 제공(1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자 유형별로 체류 목적과 정착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강화와 함께 향후 체류 가능 기간과 국적취득이 관심사이기 때문이고,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취업지원과 자녀의 모국어 지원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경우 졸업 후 취업, 영주권 및 국적취득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각 이민자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정착서비스도 다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민자 유형별 맞춤형 정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이민자 유형별로 공공서비스와 생활환경 만족도, 생활만족도에도 각기 차이가 있고 이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공공서비스 만족도(1-5점 척도)는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3.47점), 공공기관 민원서비스(3.44점), 통·번역 서비스 만족도(3.32점)의 순이나, 이민자 유형별로 외국인근로자는 의료서비스(3.71점)가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결혼이민자는 통·번역서비스(3.46점)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데 반해, 유학생은 의료와 민원서비스는 보통이고, 통·번역서비스(2.76점)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족도 차이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측면보다는 수요자 측면에 원인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논산시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비교적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자적 측면 보다는 공공서비스의 만족도가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Jones(1995)와 Lineberry(197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들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개인적인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기대수준 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맥락에서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특정국가 출신, 개인건강 상태, 유학생, 거주지역 이동횟수 등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사회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출신국가나 지역(Colic-Peisker, 2009), 체류유형(Amit, 2010)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체류기간(Erlinghagen, 2011; Bartram, 2013), 언어 능력(Chiswick, 2002)은 생활만족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안나·최승아. (2012).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295-334.
- 김희주·은희경.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33-66.
- 논산시. (2020). 「2020 논산시 노인복지통계보고서」. 논산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9년 12월)」.
- 설동훈. (2016). “이민정책 이론”. 이해경·이진영·설동훈·정기선·이규용·윤인진·김현미·한건수(편집). 「이민정책론」(pp. 77-122). 서울: 박영사.
- 오영배. (2006). 한국 사회의 소수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모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이강숙. (2007). 「국제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실태조사 및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상호. (2020). 「포스트 코로나 19와 지역의 기회」.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 이오복.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한 정착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4): 25-56.
- 이주재·김순규. (2010). 결혼이민 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30: 299-322.
- 임동진. (2019).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요인과 교육성과 분석: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 자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7(4): 283-317.
- 임동진. (2020). 저출산 고령화시대 미국, 캐나다, 호주의 이민정책 비교 연구: 이민인구와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4(2): 69-99.
- 임동진·김옥녀. (2021). 지방 중소도시 이민자들의 정착지원서비스 이용과 생활서비스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33(1): 213-246.
- 정용덕·임동진 외. (2020). 「논산시 관내 외국인 실태조사 연구」.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행정안전부. (2020).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9.1.1. 기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 황민철·문병기. (2017). 체류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1(1): 55-85.
- Amit, K. (2010).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s from Western Countries and from the FSU in Isra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3): 515-534.

- Angelini, V., Cavapozzi, D., Corazzini, L., & Paccagnella, O. (2014). Do Danes and Italians Rate Life Satisfaction in the Same Way? Using Vignettes to Correct for Individual Specific Scale Biase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6(5): 643-666.
- Anson, O., Pilpel, D., & Rolnik, V. (1996).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Immigrant Referrals to Colonoscop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3(9): 1309-1316.
- Baltatescu, S. (2005). Subjective Well-Being of Immigrants in Europe. A Comparative Study. In L. Pop & C. Matiuta (Eds.), *European Identity and Free Movement of Persons in Europe* (pp. 128-143). Oradea: University of Oradea Publishing House.
- Baltatescu, S. (2007). Central and Eastern Europeans Migrants' Subjective Quality of Life: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Identity and Migration Studies*, 1(2): 67-81.
- Bartram, D. (2013). Happiness and 'Economic Migration': A Comparison of Eastern European Migrants and Stayers. *Migration Studies*, 1(2): 156-175.
- Ben Rafael, E., Olshtain, O., & Geijst, I. (1994). Identity and Language: The Social Insertion of Soviet Jews in Israel. In N. Lewin-Epstien, Y. Ro'i, & P. Ritterband (Eds.), *Russian Jews on Three Continents: Migration and Resettlement* (pp. 364-388). London: Frank Cass.
- Benton-Short, L., Price, M. D., & Friedman, S. (2005). Globalization from Below: The Ranking of Global Immigrant C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4): 945-959.
- Berry, J. W., & Hou, F. (2017). Acculturation, Discrimination and Wellbeing among Second Generation of Immigrant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61: 29-39.
- Bevelander, P., & Pendakur, R. (2014). The Labour Market Integration of Refugee and Family Reunion Immigrants: a Comparison of Outcomes in Canada and Swede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0(5): 689-709.
- Bohnke, P. (2008). Does Society Matter? Life Satisfaction in Enlarged Europ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7: 189-210.
- Bonini, A. N. (2008). Cross-national Variation in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Effects of National Wealth, Huma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ondit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7: 223-236.
- Brandi, M. C. (2001). Skilled Immigrants in Rome. *International Migration* (Geneva,

- Switzerland), 39(4): 101-131.
- Chiswick, B. (1998). Hebrew Language Usage: Determinants and Effects on Earnings Among Immigrants in Israel.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1(2): 253-371.
- Chiswick, B. (2002). Immigrant Earnings: Language Skills, Linguistic Concentrations and the Business Cycl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2): 31-57.
- Colic-Peisker, V. (2009). Visibility, Settlement Success and Life Satisfaction in Three Refugee Communities in Australia. *Ethnicities*, 9(2): 175-199.
- Diener, E. R.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Diener, M., & Diener, C.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851-864.
- Diener, E., Sandvik, E., Seidlitz, L., & Deiner, M.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195-223.
- Edge, S., Newbold, K., & McKeary, M. (2014). Exploring Socio-cultural Factors That Mediate, Facilitate and Constrain the Health and Empowerment of Refugee Yout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17: 34-41.
- Erlinghagen, M. (2011). Nowhere Better than Here? The Subjective Well-Being of German Emigrants and Remigrants.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36(4): 899-926.
- Evans, B., & Shields, J. (2014). Nonprofit Engagement with Provincial Policy Officials: The Case of NGO Policy Voice in Canadian Immigrant Settlement Services. *Policy and Society*, 33(2): 117-127.
-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GCIM). (2005). *Migration in An Interconnected World: New Directions for Action*. Report of the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Switzerland.
- Heath, A. F., Rethon, C., & Kilpi, E. (2008). The Second Generation in Western Europe: Education, Unemployment and Occupational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34: 211-235.
- Helliwell, J. F. (2003).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Economic Modeling*, 20(2): 331-360.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tudies*, 359: 1435-1446.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ooghe, M., & Vanhoutte, B. (2011). Subjective Well-Being and Social Capital in Belgian Communities. The Impact of Community Characteristics on Subjective Well-Being Indicators in Belgium.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0(1): 17-36.
- Hou, F., & Beiser, M. (2006). Learning the Language of a New Country: A Ten-year Study of English Acquisition of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anada. *International Migration*, 44(1): 135-155.
- Hugo, G. (2008). Australia's State-Specific and Regional Migration Scheme: An Assessment of its Impacts in South Australia. *International Migration & Integration*, 9: 125-145.
- 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 (2017). *Syrian Refugee Settlement Service Clients by Province/Territory of Settlement Provider Organizations, Service Type and Immigration Category*. Last Updated April 12, 2017. Retrieved December 7th, 2021 from <https://open.canada.ca/data/en/dataset/01c85d28-2a81-4295-9c06-4af792a7c209/resource/666e4ff5-ba5f-4309-a1ff-375702bb9399>.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redale, R. (1999). The Need to Import Skilled Personnel: Factors Favoring and Hindering its International Mobility. *International Migration* (Geneva, Switzerland), 37(1): 89-123.
- Jones, B. (1995). Bureaucrats and Urban Politics. in D. J. G. Stoker & H. Wolman (Eds.), *Theories of Urban Politics* (pp. 28-42). Thousand Oaks, CA: Sage.
- Kirmanoglu, H., & Baslevant, C. (2014). Life Satisfaction of Ethnic Minority Members: An Examination of Interactions with Immigration, Discrimination, and Citizenship.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6: 173-184.
- Knabe, A., Raetzl, S., & Thomsen, S. L. (2013). Right-wing Extremism and the Well-Being of Immigrants. *Kyklos*, 66(4): 567-590.
- Lessard-Phillips, L., Galandini, S., de Valk, H. A. G., & Fibbi, R. (2015). Damned If You Do, Damned If You Don't: The Challenges of Including and Comparing the Children of Immigrants in European Survey Data. *NIDI Working Paper* no. 2015/01. The Hague: NIDI.
- Lester, L. H. (2005). Immigrants Satisfaction: What Is It? Does It Matter? *NILS Working Paper*, 154: 2-103.
- Linebery, R. (1977). *Equality and Urban Policy*. Beverly Hills, CA: Sage.

- Litwin, H. (2005). Correlates of Successful Aging: Are They Universal?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1(4): 313-333.
- Mahroum, S. (2001). Europe and the Immigration of Highly Skilled labour. *International Migration* (Geneva, Switzerland), 39: 27-43.
- Makwarimba, E., Stewart, M., Simich, L., Makumbe, K., Shizha, E., & Anderson, S. (2013). Sudanese and Somali Refugees in Canada: Social Support Needs and Preferences. *International Migration*, 51(5): 106-119.
- Massey, D. S., & Redstone, A. I. (2006). Immigrant Intentions and Mobility in a Global Economy: The Attitudes and Behavior of Recently Arrived US immigrants. *Social Science Quarterly*, 87(5): 954-971.
- McMichael, C., & Manderson, L. (2004). Somali Women and Well-Being: Social Networks and Social Capital Among Immigrant Women in Australia. *Human Organization*, 63(1): 88-99.
- Neto, F. (1995). Predictors of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Second Generation Migra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5(1): 93-116.
- Neto, F. (2001).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in Portuga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1): 53-67.
- Obucina, O. (2013). The Patterns of Satisfaction Among Immigrants in German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3(3): 1105-1127.
- Ontario Council of Agencies Serving Immigrants (OCASI) & COSTI. (1999). *The Development of Service and Sectoral Standards for the Immigrant Services Sector: Discussion Document*. Retrieved December 7th, 2021 from http://atwork.settlement.org/downloads/Development_Sectoral_Standards.pdf.
- Ormel, J., Lindenberg, S., Steverink, N., & Verbrugge, L. M. (1999). Subjective Well-Being and Social Production Funct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61-90.
- Quaked, S. (2002). Transatlantic Roundtable on High Skilled Migration and Sending Countries Issues. *International Migration* (Geneva, Switzerland), 40(4): 153-166.
- Reitz, J. G. (1998). *Warmth of the Welcome: The Social Causes of Economic Success for Immigrants in Different Nations and Cities*. Boulder, CO: Westview Press.
- Richmond, A. (2001). Refugee and Racism in Canada. *Refuge: Canada's Journal on Refugees*, 19(6): 12-20.
- Safi, M. (2010). Immigrants' Life Satisfaction in Europe: Between Assimilation and Discrimin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2): 159-176.
- Sassen, S. (2001). *The Global City* (2nd ed.).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croeter, S., & James, C. (2015). "We're Here Because We're Black": the Schooling Experience of French Speaking African-Canadian Students with Refugee Background. *Race Ethnicity and Education*, 18(1): 20-39.
- Siemiatycki, M., & Triadafilopoulos, T. (2010).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Immigrant Service Provision*. Toronto: Mowat Centre for Policy Innovation, Schoo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University of Toronto.
- Simpson, N. B. (2011). Happiness and Migration. In K. Zimmerman & A. Constant (Eds.), *International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Migration*.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Smith, R. A., & Khawaja, N. G. (2011). A Review of the Acculturation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6): 699-713.
- Smith, T. B., MucCullough, M., & Poll, J. (2003). Religiousness and Depression: Evidence for Main Effect and the Moderating of Stressful Life Events. *Psychological Bulletin*, 129(4): 614-636.
- Smyth, C., Gendera, S., Giuntoli, G., Hill, T., Katz, I., & Asante, D. (2017). *Evaluation of Settlement Grant*.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Stewart, M., Anderson, J., Beiser, M., Mwakarimba, E., Neufeld, A., Simich, L., & Spitzer, D. (2008). Multicultural Meanings of Social Support among Immigrants and Refugees. *International Migration*, 46(3): 123-159.
- Tonsing, K. N. (2013).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daptation of South Asian Immigrants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7(2): 238-248.
- United Nations (UN). (2006).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05 Re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2017).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7*. UN Department of Social and Economic Affairs.
- Vohra, N., & Adir, J. (2000). Life Satisfaction of Indian Immigrants in Canada.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12(2): 109-138.
- Walters, D., Phythian, K., & Anisef, P. (2007). The Acculturation of Canadian Immigrants: Determinants of Ethnic Identification with the Host Society. *The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44(1): 37-64.
- World Bank (2006).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6. Economic implications of Remittances and Migration*. Washington: The World Bank.

임 동 진: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을 거쳐 현재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이민정책, 갈등관리, 성과관리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Performance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for Immigrants and Influential Factors”(202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Social Conflict and the Mediating Role of Trust and Communication”(2021), “재난관리 평가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2020) 등이 있다 (djlim@sch.ac.kr).

